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과 절약행동

이 정 우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 교수)

이 지 영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 석사)

I. 서론

현재 우리 나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소득감소와 갑작스런 소비위축현상을 보여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국민전체가 자원절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일부 중하위층에게 국한된 현상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소비량이 다시 증가추세로 들어섰는데, 백화점 매출 또한 올해 평균 12% 정도의 매출신장에 순익은 30%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중앙일보, 2001년 12월 4일자).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이 생활자원을 소비하는데 있어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생활을 하였다기 보다는 국가의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소비량 급증은 저축률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우리나라 국민들의 총저축률이 지난 85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조선일보, 2001년 12월 13일자).

특히 신세대는 경제사회의 특징인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빈곤을 모른채 성장하였고 기존세대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가치의식 및 행동을 나타냄에 따라 풍요로운 소비생활로 자원절약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한채 개성주의, 합리주의, 편의주의 소비생활을 지향하고 있다(이정우 외 7인, 1996).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의 3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문선명, 1999) 신세대의 소비생활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

료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가정생활의 절약의식·절약행동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생활자원절약에 관한 연구로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행동, 자원·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구(서정희, 1986; 노채영, 1991; 현금희, 1991; 장혜경, 1992; 정진희, 1995)와 소비자의 자원사용 및 처분행동 자체에 대한 연구(강이주, 1989; 정주원, 1993)는 이루어졌으나, 주부의 실질적인 생활자원에 관한 절약의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는 듯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지니고 있는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자원절약을 위한 관리행동과 행동의 기본이 되는 생활자원 절약의식(의생활자원, 식생활자원, 에너지자원, 교통·통신자원, 가정기기자원, 자녀용품자원)등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자원절약적 가정생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효율적인 소비생활 방안 및 올바른 가정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며 이에 관련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가정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활자원절약의식 및 관련연구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의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식이란 자기 느낌, 생각 또는 행동에서 깨우쳐지는 일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의 사상, 제도, 가치현상과 같은 심리적인 대상에 대하여 방향이 결정되는 감정적인 색조인 태도이며, 이는 생물체의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활동을 뜻하는 행동이라는 개념과는 구분된다(문숙재, 1980). 정인숙(1993)은 소비자의 절약의식이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의 환경과 인간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또한 미래사회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자원고갈을 방지하자는 경제적 이점과 함께 자원에 대한 소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식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이란 일상생활 중 자원의 구매, 사용, 폐기의 생활관리과정에서 자원의 낭비 행동을 배제하고, 자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희생하여 절

약하는 생활을 실천하며 인류의 지속적인 번영을 꾀하려는 생각으로 정의한다.

생활자원절약의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흡하므로 환경문제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e Young(1986)의 연구에서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태도와 행동은 근검절약의식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경미(1987)는 에너지소비절약에 관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서 에너지소비절약태도 및 에너지소비절약지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 절약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개념정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이 자원을 선택, 사용, 폐기하는 개인의 절약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생활자원절약행동 및 관련연구

생활자원절약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자원절약의식의 강화와 생활자원절약방안의 보급을 위한 절약교육을 주부들과 가족원에게 실시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가족구성원 모두는 자원절약교육을 통해서 첫째, 생활용품의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둘째, 제품을 소비 혹은 사용할 때 소요되는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 혹은 물과 같은 자원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을 개선해야하며, 셋째, 재활용행동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노영화·강성진, 1992).

생활자원절약행동에 관한 연구로는 에너지 소비절약행동, 자원재활용행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하위영역을 의생활자원, 식생활자원, 에너지자원, 교통·통신자원, 가정기기자원, 자녀용품자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에너지자원의 절약행동의 연구로는 Heslop(1981)은 에너지에 관한 태도와 에너지 소비 및 절약행동간의 관계에서 에너지 절약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격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숙(1984)은 에너지 위기의식, 에너지자원의 가격이나 공급의 변화, 세계 에너지자원의 부족상태 및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수급 등에 대한 폭넓은 가치관을 지닌 주부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백경미(1987)의 연구에서는 에너지의 소비절약 태도와 지식이 소비자 행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해 주부의 태도 및 지식을 변화시킨다면 이들의 에너지 소비절약적 행동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의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연구를 살펴보면, 이기춘 외 5인(1989)은 의생활의 소비행

태에 관한 연구에서 패션산업의 개발과 유행의 신속성에 의해 의복의 폐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유행이 지났거나 싫증이 난 의복을 그냥 쌓아두는 경향은 미래사회의 자원 고갈 및 자원낭비의 맥락에서 진지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병미·이재명(1997)은 사장의복의 처리와 환경의 중요성을 연구하면서 실질적인 소비자의 처분행동과 앞으로의 사장의복처리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을 살펴보았는데, 실제로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줌, 그대로 보관, 폐기, 고쳐서 재활용, 헌옷 수집함에 넣는 순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자원 절약행동에 관한 연구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연구와 가계소비에서 식생활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정립(1996)은 음식물 쓰레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절약추구성이 강한 집단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적으며, 감량과 재활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조은미(1997)는 식품구매가 식사준비, 식사후 뒷처리, 음식폐기물의 비율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장보기 전에 미리 품목을 계획하여 적절한 양을 구입하며, 식품의 신선도나 제조 날짜를 확인하여 구매한다면 식품자원낭비와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승신·황은애(1999)는 사회지향적 합리주의형보다는 향유·편의추구형일수록, 식료품비 지출이 많아진다고 하였다.

가정기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소비자 처분행동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강이주·박명희(1990)는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편의주의형은 제품이 유행에 뒤떨어졌거나 사용에서 오는 권태 때문에 대개의 제품을 영구처분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였고, 근면성실형과 생존유지형은 제품의 유지를 주로 택하며 경우에 따라 일시적 처분방법을 택하지만 영구처분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은 자신의 소비행위가 가정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더 나아가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생활자원의 소비절약 의식을 가지고 보다 건전한 소비행동을 함으로써 자원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활자원을 구매·사용·처리함을 의미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신세대 주부의 절약의식 및 행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신세대 주부의 절약의식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신세대 주부의 절약행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심리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에 미치는 제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 심리적 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수정 · 보완한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 배경 변인(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직업유무, 남편의 직업, 자녀수, 가계소득,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자원적정인지도), 생활자원절약의식, 생활자원절약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생활자원절약의식 · 행동에 관한 척도는 선행연구(백경미, 1987; 안향아, 1993; 노남숙, 1994; 이춘희, 1995; 정진희, 1995; 정혜경, 1999)를 근거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수정 ·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생활자원절약의식(Cronbach' α =.94) · 행동영역(Cronbach' α =.95)은 의생활자원, 식생활자원, 에너지자원, 교통 · 통신자원, 가정기기자원, 자녀용품자원 등의 6개 하위영역, 총 6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생활자원절약의식 ·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와 이주희(1995)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Cronbach' α =.80).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외통제성은 선행연구(Mckenna, 1985; 지연경, 1991; 최정선, 1998)를 근거로 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Cronbach' α =.65),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적통제성이 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자원적정인지도는 선행연구(Rowland와 동료들, 1985; 조영희, 1991; 김경숙, 1993)를 기초로 하여 주거, 건강, 시간, 금전, 대인적, 기술·지식, 지역사회 자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2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Cronbach' $\alpha=0.88$),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적정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의 분석방법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행동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자녀를 1명 이상 둔 20세 이상 35세 이하의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무작위로 표집하였다.

조사는 2001년 3월 20일~4월 20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미수거 및 부실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429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Cronbach' α 계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t검증,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증법,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 +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심리적 변인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절약행동 수준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의 전체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4.14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하위영역중 에너지자원절약의식과 식생활자원절약의식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의생활자원절약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에 따른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사 회 인 구 학 적 변 인	주부의 연령	20대	68	15.9
		30대	361	84.1
	주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183	42.7
		대졸이상	246	57.3
	주부의 직업유무	무	291	67.8
		유	138	32.2
	남편의 직업	단순·서비스직	47	11.0
		사무직	153	35.7
		전문·관리직	114	26.6
		자영상공업	115	26.8
	자녀수	1명	113	26.3
		2명	281	65.5
3명		35	8.2	
가계소득	200만원미만	74	17.2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100	23.3	
	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62	14.5	
	300만원이상~350만원미만	75	17.5	
	350만원 이상	118	27.5	

<표 2> 조사 대상자에 따른 심리적 변인

변인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심 리 적 변 인	자아존중감	상	109(25.9)	3.61	.51
		중	205(48.4)		
		하	110(25.7)		
		합 계	424(100)		
	내외통제성	상	112(26.1)	2.27	.43
		중	218(51.5)		
		하	96(22.4)		
		합 계	426(100)		
	자원적정인지도	상	118(27.9)	3.37	.45
중		186(44)			
하		119(28.1)			
합계		423(100)			

※ 합계가 다른 것은 무응답 자료 때문임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의 전체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7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에너지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이 3.97점으로 가장 높고, 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3.88), 가정기기자원에 대한 절약행동(3.85), 교통·통신자원에 대한 절약행동(3.71), 자녀용품자원에 대한 절약행동(3.66), 의생활자원(3.61)에 대한 절약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3.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과 절약행동

1)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을 분석한 결과, 사회인구학적변인·심리적변인 중에서 연령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하였다.

신세대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도 전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즉 가정기기자원, 자녀용품자원, 교통·통신자원, 에너지자원, 의생활자원, 식생활자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유무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에서는 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가정기기자원에 대한 절약의식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편직업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05$)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의생활자원·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용품자원, 교통·통신자원, 에너지자원, 가정기기자원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수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01$)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도 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 영역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즉, 의생활자원, 에너지자원, 자녀용품자원, 가정기기자원, 교통·통신자원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가계소득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는 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내외통제성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

($p < .001$)를 보였으며,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원적정인지도에 따른 생활자원절약의식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다. 하위영역에서 의생활자원·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의식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 절약행동

연령에 따른 전체적인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으며, 하위영역에서 식생활자원, 교통·통신자원, 가정기기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을 제외한 그 나머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직업유무·자녀수·가계소득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다. 모든 하위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편직업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 < .01$)를 보였는데, 하위영역에서는 식생활자원에 대한 절약행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내외통제성·자원적정인지도에 따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은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에너지자원에 대한 절약의식($\beta = .25$), 가정기기자원에 대한 절약의식($\beta = .21$), 자녀용품자원에 대한 절약의식($\beta = .20$), 자원적정인지도($\beta = .13$), 자녀수($\beta = .11$), 주부의 교육수준($\beta = -.09$), 가계소득($\beta = -.16$)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곱 변인들의 생활자원절약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45%였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과 절약행동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

나 생활자원 절약의식이 생활자원절약 행동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은 자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와 매스컴을 통한 홍보의 영향으로 여겨지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자원절약캠페인의 전개로 올바른 자원관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집단에서 생활자원절약행동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들이 전업주부에 비해 절약에 대한 의식이 없어서 또는 낭비적인 생활태도를 가져서라기 보다는 여유시간의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원절약행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도 가정 내에서 접할 수 있는 TV등의 대중매체를 적절하게 이용한 자원절약교육이 각별히 요구되는 바이다.

3)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자원적정인지도가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과 절약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뚜렷한 자기 주관을 확립하며 자신이 가진 자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할 때 자원절약행동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관리행동을 최적으로 유발하게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는 궁극적으로 생활의 만족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나 사회교육담당자, 매스컴 등 가치관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측에서의 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신세대 주부의 생활자원절약의식과 절약행동은 전반적으로 에너지자원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홍보는 매스컴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의 계도가 있는 반면, 다른 영역에 대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자원절약의식과 행동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여져, 자원절약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범시민적 차원의 계도와 홍보가 앞서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주부들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폭넓은 지역과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생활자원절약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70~1980년대에 이루어져 최근 주부들의 생

활자원절약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측정도구가 마련되지 않아 보다 정교하고 표준화된 심층적인 척도개발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제한점은 있지만 이 연구는 우리사회의 경제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부들의 생활자원절약의식·행동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요인들이 생활자원을 절약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보는데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주부들이 생활자원절약을 하는데 있어 더욱 더 효과적인 방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경아(1998). 도시 주부의 그린제품구매행동과 환경보전행동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노남숙(1994). 주부의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 의, 식, 주, 경영·구매, 가족 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두경자·홍계옥(1998). 주부의 근검절약 의식과 근검절약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91-101.
- _____. (1999). 여대생 딸과 어머니의 근면·검소·절약 의식과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1), 145-156.
- 변순희(1994).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에 따른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도.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백경미(1987).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절약행동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손경희(1997). 대학생의 생활자원 절약의식과 태도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279-289.
- 이무영(1994).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행동.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장혜경(1992). 도시주부의 소비자의식과 자원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정인숙(1993). 소비자의 환경문제 의식과 제품처분 행동에 관한 연구 - 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구대 석사학위 논문.
- 정진희(1995). 가정생활에서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정혜경(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 행동.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최남숙(1984). 가정에너지 소비 절약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93). 서울시 주부들이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행동에 관한 연구 - 가정폐기물 분류 배출 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홍기남(1992). 생활환경문제에 대한 주부의 소비자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 De Young(1986). Some Psychological Aspects of Recycling : The Structure of Conservation Satisfac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18, 435-449.
- Deacon, R.E.,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 Allyn & Bacon Inc.
- Heslop(1981). "Consciousness in Energy Conservation Behavior :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8, No.3, 299-305.
- Tashchian, R.O. & Slama. M.E.(1985). Survey Data Attitudes and Behaviors Relevant to Energy : Implication for Policy, *Marriage and Family Review*, 9(1/2).
- Tucker, L.R.(1980). Identifying the Environmentally Responsible Consumer : The Role of Internal - External Reinforcem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4, 326-340.